

나주시, 영산포 로컬 먹거리 재해석해 젊은 세대 공략

청년 창업인 레시피 전수·먹거리 콘텐츠 창출 위해 시식회 개최
홍어 중심 식문화서 새 먹거리 발굴...청년 창업·미식관광 유도

나주의 로컬 먹거리인 영산포 고유의 식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미식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창업인 레시피 전수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콘텐츠 창출을 위해 최근 '영산포 로컬 먹거리 시식회'를 개최하고 신규 개발한 지역 특화 메뉴를 공개했다.

이번 시식회는 홍어 중심의 기존 식문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주와 영산포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콘텐츠를 발굴하고 20~30대 젊은 층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6 나주방문의해' 홍보와 함께 올해부터 4년간 나주에서 열릴 예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출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담았다.

행사에는 총 5종의 신규 로컬 메뉴가 공개됐으며 메뉴 개발에는 한식대접 하진 명장과 담심의 여왕으로 불리는 흑백요리사 정지선 셰프가 참여해 나주와 영산포의 대표 식재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특유의 톡 쏘는 향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

는 홍어를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조리법과 레시피를 적용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요 메뉴로는 나주 소고기와 양파를 활용한 나주 어니언 소고기 샐러드, 나주 오리고기의 깊은맛을 살린 영산포구 오리 육개장, 영산포 숙성 홍어와 나주 배를 조합한 영산포 배 홍어 콜드 요리, 젊은 층을 겨냥한 영산포 홍어 김밥, 마라 소스로 풍미를 살린 사천식 홍어 냉채 등이 소개됐다.

나주시는 이번 시식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메뉴 완성도를 높이고 레시피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완성된 메뉴는 향후 청년 창업인에게 레시피 전수와 상권 내 창업으로 연계해 영산포 상권의 특색 있는 먹거리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식회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 로컬 먹거리 개발을 청년 창업과 새로운 미식 문화를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검증된 레시피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창업 연계를 추진해 영산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로비에서 '영산포 로컬 먹거리 시식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생활 불편 해결사 '담양군 민원톡'

카톡으로 도로 파손·가로등 고장·불법 폐기물 등 민원 간편 접수

"생활 불편 안전 문제는 '담양군 민원톡'으로 해결하세요."

담양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과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담양군 민원톡' 활성화에 나섰다.

담양군 민원톡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 기반 생활민원 소통 창구로,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폐기물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민원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단순 질의나 간단한 문의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담양군 민원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현장 상황을 바로 전달할 수 있어 민원 접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민원은 총괄부서인 민원과에서 확인 후 소관부서와 협력해 처리하며,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단순민원은 5일 이내, 복합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최대 7일 이내 처리 계획과 결과를 안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근무일에 순차적으로 확인해 처리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민원톡을 지속해서 운영·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 방문의 해' 종량제 봉투 활용 홍보

시, 공식 문구 및 슬로건 삽입...관광 수요 확대·지역 경제 활성화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위해 2026년을 나주 방문의 해로 선포한 나주시가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종량제봉투에 '2026 나주방문의 해' 공식 문구와 슬로건을 삽입해 홍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매개로 '2026 나주 방문의 해'와 지역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종량제봉투는 사용 빈도가 높은 생활용품인 만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슬로건인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나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며 "나아가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2026 나주방문의 해' 공식 문구 및 슬로건이 인쇄된 종량제봉투.

작수년도 출생자 '국가암검진'의 해

장흥군, 홍보 캠페인...보험료 기준 하위 50% 무료

장흥군이 노인일자리 확대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2026년 국가암검진 사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으로 검진이 가능하다.

2026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작수년도 출생자로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특히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출생연도와 관

계없이 매년 1회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을 확인한 뒤, 가까운 국가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장흥군 내 검진기관은 장흥종합병원과 장흥우리병원, 이상준내과의원, 한마음내과의원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암검진을 받은 후 검사결과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선착순 선물증정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군민 모두가 더욱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논 깊이같이'로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하세요

강진군, 유도·확산 위한 시연회
토양 속 해충 제거·작물 활착 효과
약제 지원 등 선제 대응 강화

강진군이 이상기후에 따른 왕우렁이 개체 수 증가에 대응하고 벼 재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 깊이같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왕우렁이는 화학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잡초 제거에 효과적인 생물방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 후 생존 개체가 늘어나면서 이앙 후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농경지에서 발생했다.

이에 강진군은 2024년 발생한 왕우렁이 피해를 교훈 삼아 선제적 대응책으로 논 깊이같이를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논 깊이같은 일반적인 로타리 작업보다 깊게 토양을 갈아엎는 방식으로 토양 속 해충 제거와 작물 뿌리 활착에 효과적인 농법이다. 특히 왕우렁이는 약 10cm 깊이로 파고들어 월동하는 특성이 있어 깊이같이를 통해 이를 지면 위로 노출해 동사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크다.



왕우렁이 월동피해 방지를 위해 트랙터를 이용한 깊이같이 시연회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군은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억여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해 왕우렁이 예방 약제를 지원하고 피해 최소화화 사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9일에는 트랙터 6대를 동원해 논 깊이같이 시연회를 개최해 농업인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천 기술을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우렁이 월동 생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깊이같이와 논 말리기 등 겨울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벼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화순군, 장기요양 재택의료 기반 강화

원광·조영북한의원과 협약...의료진·사회복지사 방문 의료 서비스

화순군이 원광한의원·조영북한의원과 함께 재택의료 기반 강화에 나섰다.

화순군은 통합돌봄사업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들 두 기관과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급자가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협력 ▲의료·복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 자리에서 원광한의원 김진원 원장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조영북한의원 조영북 원장은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한의원 2개소 지정에 이어 향후 내과·외과 등 양방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방문구강관리, 방문재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보남 화순군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집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행복함평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함평 인제양성기금 200만원 기탁

행복함평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함평군 인제양성기금에 200만원을 전달했다.

행복함평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군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된 단체다.

센터는 주로 시군역량강화사업·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인제양성기금을 기탁했다.

주진백 센터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 환원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마을을 모았다"라며 "기금이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데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기탁

된 기금은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